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과목

원 용 진

서강대 언론대학원 대우교수



문 학청년, 문학소녀들이 남기고 간 캠퍼스를 색다른 청년과 소녀들이 거닐고 있다. 영화 청년, 영화 소녀가 그들이다. 대학마다 서너 개씩의 영화 동아리가 결성되고 축제 때면 영화와 관련된 특강, 영상제 등이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으로 환호받는다. 광고 청년, 광고 소녀들도 동아리를 만들고 광고를 제작, 비평하느라 분주하다. 컴퓨터 통신을 장기로 삼는 청년과 소녀들도 있다. 이제 그들은 세련된 이름들은 좋아하는 탓인지 '○○매니아'라는 칭호로 서로 정체성을 나눈다.

물감들이인 야전 잠바와 혈기 잃은 얼굴로 인생을 논하던 강의실도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수업시간에도 온갖 패션이 출렁이고 텔레비전에서만 발설되던 슬랭도 강의실 안에서 거침없이 튀어나온다. 학생들은 마치 텔레비전을

보듯이 음료수를 마시며 강의를 즐긴다. 텔레비전 채널 돌리듯이 강의 들을 기분이 아닐 땐 수업중에도 아무 주저없이 강의실을 빠져나가기도 한다. 전에 없는 삐삐 소리나 핸드폰 소리가 가끔씩 강의하는 이를 놀래키기도 한다.

문학청년, 소녀들이 다녔을 법한 캠퍼스 근처 주점들은 모두 카페라는 간판을 내걸고 한층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다. 컴퓨터를 갖추고 인터넷 사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카페나, 영화 포스터만으로 장식한 채 눈길을 끄는 업소, 만화 매니아만을 향해 손짓하는 만화 카페도 등장했다. 한 벽면의 스크린을 통해 해외 광고들만 쏟아내는 카페도 등장했다. 비디오방, 휴게텔이 버젓이 대학 교문과 자리를 나란히 하기도 한다.

대학 근처 서점들엔 영화 관련 서적, 대중문화 관련 서적들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되어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영화 전문 주간지 『씨네 21』은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며 대학생들의 교양 관심도를 재는 새로운 척도가 되고 있다. 정신분열증적인 편집으로 악명 높은 『키노』라는 영화 전문지도 지극히 어려운 내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팔리고 읽히고 있다. 어려운 전문용어로 적힌 *Review*도 판매 감소를 겪고 있는 문예지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록 음악의 저항성과 정치성을 다룬 책들도 예전 사회과학 서적이 차지했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출판계에서는 대중문화 서적을 불황 타개책으로 들먹인다고 한다.

이렇듯 캠퍼스의 안과 밖은 대중문화의 물결로 넘실댄다. 이에 대한 가치판단은 많다. 예전과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 이제 대학이 진지함을 잃었다든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든지 등과 같은 불멘 목소리가 많이 전해진다. 그 걱정과 케를 같이 하듯 한때 새로운 세대는 소비적 문화 감수성을 지닌 이해 못할 인간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선배들의 치열한 삶을 걸으며 제껴둔 채 경제성장의 과실을 따먹는 염치없는 인간들로 폄하되기도 했다.

성급한 판단이나 윤리적 평가에 비해 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나 구체적인 고민은 턱없이 적어보인다. 대학입시의 틈바구니에서 유일한 낙으로 자리잡았던 대중문화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을 수도 있고 선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미

대중문화는 그들의 일상 안으로 너무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고 그에 대한 믿음도 형성된 터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에게 대중문화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고 조언도 해주지 않았다. 만약 조금이라도 언급이 있었다면 '가까이 하지 마라.' 정도가 아니었을까? 대중문화에 대한 믿음은 이미 굳어져 누구든 쉽게 돌려놓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

그들의 일상에 가장 가까운 사안인 대중문화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볼 시간을 가져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까? 많은 학생들은 자신이 즐기고 있는 문화에 대한 궁금증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다. 시중에 나와 있는 도서들을 무작위로 섭렵하려는 과감파로부터 정식으로 공부를 해보려 유학의 문을 두드리는 학구파. 이도 저도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대학 바깥에 있는 교육기관을 찾기도 한다. 민예총, 인문과학연구소, 한겨레문화센터 등에서는 대중문화를 보는 시각을 정리해주는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대중문화를 고민해 볼 수 있는 패러다임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대중문화의 적절한 이용을 안내해 주기도 한다. 대중문화에 대해 좀더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해서 대중문화 비평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보고자 하는 대학생들도 그러한 캠퍼스 밖 교육기관을 찾는다. 중·고등학교부터 이미 버릇이 된 사교육비 지출은 대학까지 이어지는 셈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알고 싶고

체대로 즐기기를 원하는 것이다.

문화산업은 이런 호재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 각종 대중문화 전문지를 출판해 새롭게 출판문화의 지형을 짠다. 새로운 글쓰기를 무기로 하는 대중문화 평론가들을 발굴하여 새로운 입을 거리를 쏟아내고 있다. 그 전문잡지들은 영화, 텔레비전, 광고, 의상, 대중음악 등을 하나의 텍스트로 삼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파악한다. 대체로 쉽게 읽어낼 수 있는 글들은 아니다. 대중지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독자에게 전해지는 내용은 그리 친절하지 못하다. 정제되지 않은 개념들이 글쓰는 이의 자기과신에 휩쓸려 넘쳐나 독자들을 더욱 대중문화 논의로부터 소외감을 맛보게 한다. 지적 호기심의 학생들은 그러한 비평들을 쉽게 흡수하기도 하고 흉내내기도 한다. 덕택에 스타 평론가들이 새로운 우상으로 등장하고 비평문이 새로운 입을 거리로 등장한다. 문화비평, 영화비평을 업으로 삼겠다는 학생도 전에 없이 늘어났다. 대중문화에 대한 담론 자체가 새로운 대중문화 현상이 되는 기현상을 목도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은 팔짱을 낀 채 그 현상들을 외면하고 있다. 우선 커리큘럼을 통해서 대중문화에 대한 외형적인 태도를 알 수 있다. 대체로 상아탑에서의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은 고급/대중문화라는 낡은 도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문학이나 미학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문화는 약간의 자투리 자리를 차지할 뿐이다. 그것도 고급문화를 중심으로 한

논의로 그치기 일쑤다. 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책임질 과(科)도 분명치 않다. 여성과 예술, 예술과 사회, 문화와 예술 등의 과목을 개설해 보지만, 한 과가 책임있게 이를 전문적인 수준의 강의로 시리즈화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와중에 대개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어쩌면 대중문화가 상아탑 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 자체에 불쾌해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중문화는 현재 대학이 생각하고 대접하고 있는 것 이상의 영역이다. 우리의 주요한 일상이며 모든 사회적 모순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 영역을 통해서 정체성이 구성되고 사회를 보는 시각이 형성된다. 저자 거리처럼 저급하고 소란스러워 보일지라도 그냥 쉽게 흘려버릴 사소한 것은 아니다. 시끄럽고 더러워 보이는 시장이 우리에게 일용할 식품들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대중문화도 그러하다. 온갖 감수성을 배우고 생의 지침까지 얻게 되는 중요한 영역이다. 대학이 그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틀린 문화로, 잘못 찾아온 문화로 밀쳐두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교육은 단순히 문화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아야 한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중요성과 고민을 전해주는 실질적인 교육이다. 문화란 우리가 흔히 나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분류속의 자투리 영역이 아니다. 다른 분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경제나 정치와 관련되지 않고서는 대중문화가 논의되지 않는다. 헐리우드의 영화를 즐기는 것이 어찌 여가 보내기 정도에만 그칠까?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 교육제도의 맹점을 꼬집는 서태지의 노래가 어찌 철부지 아이들의 놀음이기만 할까? 대중문화를 통해서 사회를 읽고 대중문화가 우리의 일상 안으로 얼마나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하고, 그 정체성을 알아보는 일은 대학이 간여할 정당성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대학이 내놓을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정리해 보자. 먼저 교양과목으로 대중문화 교육을 시리즈별로 개설해 보는 일이다. 대중문화의 정체, 대중문화와 우리의 생활 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다분히 사회과학 교육의 영역 안에 포함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자로 긋듯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교양국어 안에 문학과 대중문화의 관계, 대중문화로서의 문학 등 얼마든지 포함시킬 수 있다. 철학 교육에도 얼마든지 흡수될 수 있다. 후기 구조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새로운 인식론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중문화에 대한 설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외국문학 교육에서도 최근 서구에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문화연구(cultural studies) 등에 대한 교육으로 대중문화에 대한 논의를 이끌 수 있다.

교양과목을 넘어서는 심도있는 논의는 각 과의 커리큘럼 안에서 소화될 수 있

다. 인류학 안의 도시인류학, 대중문화와 사회 등으로, 사회학 안에 대중문화의 사회학, 대중문화 생산의 사회학 등으로, 정치학 안에 대중문화와 정치, 이미지와 정치 등으로 개설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각 과끼리의 유기적인 커리큘럼 짜기 등을 통해서도 중급·고급 과목으로 정리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이 지금 대학에 요구되고 있는 간 학문적(inter-disciplinary) 교류의 좋은 시범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학이라는 영역이 부재하고 그 교육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 대중문화는 대학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에 대한 체계적 교육도 없었고 이론적 논의도 많지 않았다. 오히려 상아탑 밖에서 더 활발히 논의되고 연구되었다고 보는 편이 옳을 듯하다. 하지만 더 이상의 무관심은 교육의 장에서의 온전한 소통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단순한 세대차가 아닌 문화적 차이로 인해 대학은 대학의 정체성을 갖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시공 감각의 근거가 되어주는 대중문화에 대학이 관심을 갖고 학생들에게 고민할 기회를 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

원용진/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강대 언론대학원 대우교수로 재직중이며, 같은 대학 방송아카데미 교수부장과 한국영화연구소(KFI)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대중매체와 페미니즘』, 『초정보사회와 뉴미디어』 등이 있고, 『대중문화의 과잉담론』, 『문화연구와 맑시즘』, 『신문화산업론』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